

소외와 불만, 두려움이 동반되는 고된 노동

번역의 즐거움이러니?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노동이 즐거운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하는 우를 무릅쓰고 말한다면 번역은 노동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가끔 그럴듯한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번역은 고된 노동에 가깝다. 물론 번역이 노동이라는 점에 불평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없고,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흔한 말로 노동은 신성하고 보람 있는 것. 그러니까 즐거움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노동 외에 딱히 다른 뽕족한 수도 없고 이왕 주어진 숙명이라면 억지로라도 의미를 찾는 수밖에 없다.

이재룡_송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번역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번역에 쏟은 땀이 적절히 보상을 받느냐에 달려 있다. 보상의 적절성은 여러 차원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금전적 보상은 접어두고라도 우선 자신이 쏟아 부은 시간과 땀이 그 결과물에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런데 번역은 자신이 공들인 결과물로부터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는 묘한 노동이다.

일단 작품의 번역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 속에서 원작자의 생각과 느낌에 주목할 뿐이며 역자는 투명인간이 되어 뒷전에 물러나야 한다. 노동의 결과에서 자신의 땀 냄새가 휘발되는 현상을 흔히 소외라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소외가 번역의 숙명이라면 소외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게다가 원작보다 나은 번역이라는 칭찬 아닌 칭찬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역자들은 걸핏하면 번역투 문체, 줄역, 오역의 딱지를 달기 십상이다. 하지만 서점에서 많은 역서가 넘쳐나고 역서 뒤에는 그 수만권의 역자가 있는 셈이다. 고생길을 마다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외국 문학, 넓게는 인문학을 공부한 뒤 전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 오로지 읽고, 가르치고, 쓰는 일에서만 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그 중 하나가 번역이다. 가끔 번역

보다 신성하고 보람된 길을 제시하며 꾸짖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빵을 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는 말처럼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여기에서 빵이란 표현은 생존만이 아니라 실존의 문제와 결부된다.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행위에 닿아 있다는 뜻이다. 특히 문학의 경우, 가르치고 쓰는 일은 주로 역사적 사실과 개념의 전달로 모아진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진한 것이 외국 문학을 전공한 내 입장이다. 문학사의 지식이나 장르의 개념을 아는 것보다는 그냥 한 편의 소설을 읽는 쪽이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번역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그런 보탬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번역의 괴로움을 완전히 덜어주지 못한다. 번역의 괴로움은 앞서 언급한 투명한 전달자의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다. 원작 내용의 근사치에 접근했다는 느낌이나 환상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감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런 미진함은 내내 역자의 머리 속을 윙윙처럼 떠돈다. 예컨대 가장 프랑스어다운 표현은 다른 언어로 옮겨지지 않는다. 한국적 정서가 듬뿍 배인 표현은 도저히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다. 나는 번

이 글을 쓴 이재룡은 1956년에 태어나 성균관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 브장송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로운 남자》《벵갈의 밤》《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옥조》《길고도 가벼운 사랑》《사진기》《불확정성의 원리》《일 년》《잠업호텔》《카페 여주인》《정체성》《금발의 여인들》《부끄러움》《장 의사 강그리움》 등을 옮겼으며, 현재 숭실대 불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역 작품도 흡사 우리네 작가가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읽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번역 작품은 번역 작품다워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쪽인데 문제는 아직껏 자연스런 번역체가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오역에 대한 두려움이다. 오역의 위험은 작품 곳곳에 지뢰처럼 깔려 있다. 우선 아무리 읽어도 뜻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원어민에게 물어도 고개를 끄는 문장도 없지 않다. 자기 글이라면 생각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경우 아예 건너뛰거나 돌려 말할 수 있지만 번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번역작업은 마냥 미완에 머문다. 또한 당장 우리말로 옮겨지지 않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고민한다면 흡족한 표현이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역자가 청탁자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이건 시급하게 번역해야 할 작품”이란 소리이다. 건다보면 한번쯤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뛰라고 재촉하면 실족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번역이 더딘 것은 무능 탓이지만 청탁자들은 대개 게으름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능보다 게으름에 가혹하다.

소외와 불만, 두려움마저 동반되는 번역이 가끔 즐

거울 때도 있다. 원작에 가까운 우리말 표현이 큰 어려움 없이 풀려나올 경우이다. 아마 원작자와 역자의 생각과 느낌이 순간적 공명을 이룬 덕분일 것이다. 나는 수많은 다른 빼어난 역자들의 작품에서 공명의 순간을 짐작하고 그것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내 경우에는 그런 즐거움은 드문 편이고 오히려 나중에 착각에서 비롯된 즐거움으로 판명되는 수가 더 많았다. 종종 원문을 내가 평소 읽고 싶었던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순간적 즐거움이 큰 만큼 실망도 오래 간다.

결국 번역에는 현실적 괴로움과 착각에 의한 순간적 즐거움만 있다는 낯두리를 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번역이라는 길에서 서성이는 이유는 언젠가 앞서 늘어놓은 불만을 감수할 만한 작품을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괴로움은 현재형이고 즐거움은 미래형이라고 주장한다면 과장된 비관주의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번역의 즐거움이란 주제를 붙잡고 며칠을 생각해 봐도 즐거웠던 기억이 없으니 어찌란 말인가. 생면부지의 사람이 내 번역을 읽고 즐거워하리란 상상을 하고, 그 상상 속의 독자의 즐거움을 내 것이라고 우기기는 싫다. **이재룡**